

발자크 문학의 이념적 성격*

李 東 烈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부교수)

1

이념적 성격은 문학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와 흥미 가운데서 어떤 몫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이념적 성격 때문에 어떤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이 아니다. 종교와 절대왕정을 양대 지주로 하는 프랑스 구체제의 이데올로기에 충실했던 17세기 고전주의 작품들이 그 이데올로기에 맞서 싸우는 것을 주조로 했던 18세기 계몽주의 문학의 작가들에 의해 읽혔으며, 구체제가 붕괴한 프랑스 대혁명 이후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독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데올로기는 시대와 더불어 변모를 거듭하게 마련이지만, 이른바 걸작이라고 불리우는 문학 작품들은 불멸이라는 과장된 수사를 허용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상당한 세월 동안의 이데올로기의 변주와 부침을 뛰어넘는 생명력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동시대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반된 이념적 입장이 반드시 문학 작품의 독서와 평가에 절대적 장해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화주의적 이념에 투철했던 Victor Hugo는 절대왕정주의자를 자처했던 Balzac의 문학을 옹호했으며, Balzac는 절대왕정주의에 적대적인 Stendhal의 문학작품을 찬양했다. Flaubert는 분명히 정치적으로 보수주의자이며 반민중적 편향의 작가였지만, 그의 *Madame Bovary*는 어떠한 이념적 경향의 사람에게나 여전히 흥미로운 독서의 대상이며, 뛰어난 문학 작품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전문적 문학비평에서도 Flaubert의 경우 주로 그의 작품의 미학적 가치의 해명에 치중되며, 그의 이념적 입장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이념의 문제가 문학비평의 큰 관심사로 등장하여 끊임없이 논의가 되풀이되는 것은 Balzac의 경우가 유별난 것으로 보인다. Victor Hugo, Emile Zola 같은 19세기의 대작가들이 그의 이념적 입장에 대해 언급한 이후, Engels, Lukacs 같은 마르크시즘의 거장들이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했으며, Bernard Guyon, André Wurmser, Pierre Barbéris를 비롯한 주요한 Balzac 연구가들에 의해 이 문제는 현대 비평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Balzac는 보수적인 역사관을 표명한 작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세계에 의해 진보적인 작가가 될 수 있었다는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 되풀이된 여러 갈래의 자세한

* 이 논문은 1988~90년도 문교부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

논의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언급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고, 이 명제에 대한 이의 제기를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게 할 정도이다. 과연 Balzac의 작품들은 모두 작가의 이념적 문제와 결부되며, 작가의 표면적 이념을 배반하는 진보적 성격의 세계를 갖는 것인가? *La Comédie humaine*라는 거대한 작품군을 하나의 세계로 보는 거시적 입장이 아니라 Balzac의 작품 하나 하나를 읽어가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런 의문이 떠오를 수 있을 것이다. 작가 자신에 의한 체계화에도 불구하고 90여 편에 달하는 그의 작품들이 모두 엄밀한 유기적 관계 속에 놓이는 것은 아니며, 모든 작품들이 Balzac의 체계에 반드시 긴밀하게 대응되는 것만도 아니다. 전문적인 Balzac 연구가가 아닐 경우 *La Comédie humaine*의 체계를 고려함이 없이, 또 인접한 Balzac의 다른 작품들과의 연계를 고려함이 없이 그의 개개의 작품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대체로 일반 독자들의 Balzac 문학에의 접근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Balzac의 작품들은 물론 *La Comédie humaine*라는 거대한 세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조직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 하나 하나가 각각 독립된 작품세계로 간주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비교적 전문적 비평의 입장에 설 때에도, *La Comédie humaine*의 작품 하나 하나를 미시적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경우 가능할 것이다.

미시적 관점에서 작품 하나 하나를 별개의 세계로 고찰할 때, Balzac의 어떤 작품들은 이념적 관점에서의 조명을 아예 배제하거나, 그런 관점에서의 조명의 여지가 지극히 희박한 성격을 보여 준다. *Séraphita*나 *La Peau de Chagrin* 같은 작품에서 작가의 이념 문제와 연결시켜 볼 요소는 거의 없으며, 철학적 연구 *Etudes philosophiques*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작품들이 이념적 관점에서의 조명에 잘 대응되지 않는다. 적어도 철학적 연구에 속한 많은 작품들 중 정치적 이념의 문제가 작품의 주요한 관심사거나 흥미를 이루는 작품은 찾아볼 수 없다. *La Comédie humaine*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풍속연구 *Etudes des Mœurs*에 속한 작품들 역시 한결같이 이념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작품에서는 이념의 문제가 전면으로 부각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작품에서는 그것이 간접적으로만 암시될 뿐이고, 또 어떤 작품에서는 이념적 성격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Le Médecin de Campagne*는 풍속연구 가운데 전원생활 정경 *Scènes de la vie de campagne*에 속하는 작품으로서, Balzac의 모든 소설 중 그의 정치적 입장이 가장 전면으로, 또 가장 체계적으로 표출되어 있는 소설로 꼽히고 있다. 이 작품은 Balzac의 인물 반복 등장 기법이 출현하기 이전의 소설로서, 중심 인물인 Benassis를 비롯하여 이 소설에 출현했던 인물들이 다른 소설에 다시 등장하는 일이 없으며, 이 소설의 줄거리 역시 다른 소설들과 일체 연계가 없기 때문에 작가 자신의 *La Comédie humaine* 분류 체계가 없다면 전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소설세계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 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이 소설에 나타난 Balzac의 정치·사회적 견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문제는 *Le Médecin*

*de Campagne*의 중심 주제의 하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설세계의 조명에 직결되는 것이며, 또한 나아가 지금까지 되풀이되어 온 Balzac 문학의 이념적 성격을 둘러싼 논의와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2

*Le Médecin de Campagne*는 1832년 9월에 구상되어 1833년 7월에 출판된 소설로서 Balzac의 작품들 가운데 가장 오랜 숙고를 거친 작품의 하나이다. 다른 소설들과는 달리 Balzac가 이 소설 창작을 자신의 정치·사회·경제·종교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기회로 삼아 자신이 후보자로 나서려고 했던 선거에서 하나의 선전 도구로 이용하려 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작가 자신이 이 작품에 부여하고자 했던 소설 이상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는 Zulma Carraud 부인에게 보냈던 다음과 같은 편지 귀절 속에 잘 함축되어 있다.

Ma foi, je puis mourir en paix. J'ai fait pour mon pays une grande chose. Ce livre vaut, à mon sens, plus que des lois et des batailles gagnées.¹⁾

나는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해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 책은 법률이나 승리한 전투 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수정을 거쳐 나온 *Le Médecin de Campagne* 최종판은 각각 제목이 붙어 있는 다섯 개의 Chapitre로 구분되어 있다. 작품 전체가 작자 자신의 명백한 표면적 의도와 연결되어 있지만, 특히 정치·사회적 견해가 적나라하게 진술되어 있는 부분은 *Le Napoléon du peuple*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제 3장이다. 자신을 방문한 Genestas 소령을 위해서 마을의 유지들을 초청하여 배우는 만찬 석상에서 시골 의사이며 마을의 시장이기도 한 작품의 주인공 Benassis는 길게 자신의 견해를 설명한다. 물론 Balzac는 이 부분을 소설적 구성에 어울리도록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이처럼 정치·사회적 견해가 직설적으로 길게 소설 속에 개입하는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소설적 흥미 속에 끼어드는 정치 얘기를 〈연주회 중의 권총 소리〉 같다고 말하면서 정치 문제에 언급할 때마다 극도로 거북스러움을 드러냈던 Stendhal과는 달리, Balzac는 이 부분에서 소설 주인공의 입을 빌려 자신의 정치·사회적 견해를 장황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Le Médecin de Campagne*는 의심할 나위 없이 하나의 정치적 팜플렛과 같은 성격을 띄며, 작자의 보수적인 정치적 입장을 적나라하게 노정하고 있다. Balzac의 보수주의를 변호하고 정당화하는

1) Lettre à Mme Carraud, 2 Sept. 1833, B. Guyon, *La Pensée politique et sociale de Balzac*, Armand Colin, 1969, p.634에서 재인용.

관점에 서는 비평가들을 포함하며 대부분의 Balzac 연구자들이 이 작품의 이와 같은 성격을 인정하는 데에는 일치하고 있다. 작품의 성격 규정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Balzac 연구가들의 견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Ce qui importe pour nous, c'est que Balzac ait voulu faire et qu'il ait fait de son oeuvre une profession de foi politique ou, plus largement encore, une synthèse de ses idées sur les questions concernant la marche de la société. Publié à l'issue de ces orageuses années, où il avait essayé d'aborder la vie politique, *le Médecin de Campagne* est le couronnement, l'aboutissement de tant de persévérants efforts.²⁾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발자크가 자신의 작품을 정치적 신조의 선언으로, 더 넓은 의미로는, 사회의 진행에 관계되는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의 종합으로 만들고자 했으며, 또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그가 정치계에 접근하려고 시도했었던 그 파란 많은 시절의 끝에 출판된 《시골 의사》는 수많은 집요한 노력의 완성이며 귀결이다.

Le Médecin de Campagne, en 1833, expose une théorie qui se veut conservatrice, anti-parlementaire, sans aborder toutefois réellement le problème monarchique.³⁾

1833년에 나온 《시골 의사》는 실제로 군주정치의 문제를 다루지는 않지만, 보수적이고 반의회적인 이론을 개진하고 있다.

C'est surtout comme étape de l'évolution politique de Balzac que *Le Médecin de Campagne* peut encore nous intéresser. C'est un épisode de son engagement aux côtés des légitimistes, qui avait commencé en mars 1832, lorsque Balzac avait donné sa collaboration au premier numéro du *Rénovateur*. Si la vanité mondaine, comme on le soutient parfois, avait eu quelque part dans le ralliement de Balzac au parti du duc de Fitz-James, il faut bien avouer que la déception et l'amertume ne changèrent rien à ses principes. Car *Le Médecin de Campagne* est le bréviaire du conservatisme paternaliste historié d'images d'Epinal.⁴⁾

《시골 의사》가 아직도 우리에게 흥미로울 수 있는 것은 특히 발자크의 정치적 변화의 단계로서이다. 이 작품은 발자크가 《개혁》지 첫 호에 협력을 제공했던 1832년 3월에 시작된 그의 정통왕조주의자 진영 가담의 한 에피소드이다. 사람들이 때때로 그렇게 주장하듯, 피츠 제임스 공작파에 발자크가 가담한 데에는 사교적 허영심이 얼마간 작용했다 할지라도, 실망과 쓰라림이 그의 원칙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골 의사》는 에피날의 그림으로 장식된 가부장적 보수주의의 일과서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Le Médecin de Campagne*는 정치와 사회 문제에 관한 작자의 종합적인 견해를 진술할 의도로 쓰여진 작품이라는 것, 실제로 작품은 이러한 의도를 구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작품에 드러난 정치적 이론은 보수적 성향이라는 것을 일단 인정하고 나면, 과연 이 작품에 진술된 보수적 정치 이론의 구체적인 실상은 어떤 것이며,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2) B. Guyon, *op. cit.*, p. 636.

3) P. Barbéris, *Mythes balzaciens*, Armand Colin, 1972, p. 40.

4) M. Bardèche, *Balzac*, Julliard, 1980, p. 236.

하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작품의 성격상 이 작품의 의미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해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제가기도 한 이 문제에 접근하기 전에, *Le Médecin de Campagne*는 이론서나 선전 팜플렛이 아니라 하나의 소설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환기되고 강조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작자의 의도가 어떠했든간에, 그리고 이 작품의 소설적 구성이 아무리 느슨하든간에, 이것은 하나의 소설 작품인만큼 Benassis의 입을 통해 진술되는 정치·사회적 견해가 이 작품의 전적인 흥미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Balzac가 제시하려고 했던 정치·사회적 견해가 이 작품의 모든 것이라면, 이 작품은 아무리 큰 작자의 위광에 의해 뒷받침된다 할지라도 오늘날까지 하나의 소설 작품으로 살아남아 읽히지는 못할 것이다. Balzac의 다른 걸작들에 비해 소설적 흥미가 얼마간 떨어지는 작품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작품 역시 하나의 소설 작품으로 읽을 수 있는 여러가지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관점에 따라서는 작자의 의도가 보다 표면적으로 떠오르는 제 3장보다 작품의 주인공에 의해 유토피아적 농촌이 건설되어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제 1장과 제 2장, 또는 주인공의 슬픈 과거사를 담고 있는 제 4장 *La Confession du médecin de campagne*가 더 흥미롭게 읽힐 수 있을 것이다. 비교적 줄거리가 단순하고 구성이 평면적이어서 극적 긴장감이 결여된 소설이긴 하지만, 대단히 인상적인 인물인 Benassis에게로 모든 것이 집중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이 작품은 주인공에 의해 어느 정도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또한 두 중심인물 Benassis와 Genestas의 사랑의 이야기와 인간애, *la Fosseuse* 같은 섬세하고 민감한 영혼을 지닌 주변 인물의 출현, 소박한 시골 풍속의 묘사 등으로 인하여 이 소설은 테마소설이 갖게 마련인 건조함을 얼마간 상쇄할 수 있는 서정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이념적 문제에 대한 탐구는 이 소설의 의미에 대한 중심적 탐구이기는 하되, 이 소설에 대한 전적인 해명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3

주인공 Benassis을 포함하여 그의 방문객 Genestas 소령, 마을의 치안판사 Dufau, 공증인 Tonnelet, 부시장 Cambon, 사제 Janvier가 참석하는 6인의 만찬석상은 Balzac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체계적으로 진술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마련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작자 자신의 대변인임이 분명한 Benassis는 민주주의 체제의 원리인 보통선거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만찬석상의 대화에 자연스럽게 흐름을 주기 위한 배려인 듯, 선거제도에 대한 이야기의 실마리는 사제 Janvier로부터 나온다. 그는 교회제도가 선거제도에 입각해 있었으므로 현재 정치제도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L'Église, de laquelle peu de personnes s'avisent de lire l'histoire, et que l'on juge d'après certaines opinions erronées, répandues à dessein dans le peuple, a offert le modèle parfait du gouvernement que les hommes cherchent à établir aujourd'hui. Le principe de l'élection en a fait longtemps une grande puissance politique. Il n'y avait pas autrefois une seule institution religieuse qui ne fût basée sur la liberté, sur l'égalité.⁵⁾

아무도 그 역사를 읽어 볼 생각을 하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민중에 퍼뜨려진 잘못된 견해에 의해 판단되는 교회가 오늘날 사람들이 확립하고자 애쓰는 정부의 완벽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선거의 원칙이 오랫동안 교회를 커다란 정치 세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옛날에는 자유와 평등에 근거하지 않은 종교 제도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Benassis는 선거제도가 교회에는 훌륭한 원칙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나, 국가에는 적용되어서 안될 유해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모두 교육을 받은 학식 있는 사람들이고, 종교적 감정에 의해 훈련되었으며, 동일한 체계 속에 흡수되어 일정한 방향각각을 갖추고 있는데 반해, 일반 대중은 후견하에 놓여져야 할 무지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Benassis, 다시 말해 Balzac의 민주적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의 밑바탕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민중에 대한 불신과 경멸의 감정이 깔려 있다.

Les prolétaires me semblent les mineurs d'une nation, et doivent toujours rester en tutelle. Ainsi, selon moi, messieurs, le mot *élection* est près de causer autant de dommage qu'en ont fait les mots *conscience* et *liberté*, mal compris, mal définis, et jetés aux peuples comme des symboles de révolte et des ordres de destructions. La tutelle des masses me paraît donc une chose juste et nécessaire au soutien des sociétés.⁶⁾

하층민들이 나에게서 국민의 미성년자들로 보이며, 그들은 항상 후견하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잘못 이해되고, 잘못 정의되었으며, 반항의 상징과 파괴의 명령처럼 민중에게 내던져진 <의식>이니 <자유>니 하는 말들이 끼친 해악만큼이나 <선거>란 말은 해악을 야기할 것입니다. 대중의 후견이 나에게서 사회의 유지에 정당하고도 필요한 일로 보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민중의 봉사자 Benassis의 입을 통해 표현되는만큼 이러한 민중관은 어느 면에서 변호의 여지가 많다 할 수 있겠으나, 여하튼 민중의 무지와 무능에 대한 확신 때문에 Balzac는 민주제도의 기본 원리인 선거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제도의 확산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우리는 이 소설의 시대 배경이 1829년, 즉 7월혁명 직전인 왕정복고 말기임을 알고 있다. 이 당시 민주적 자유선거는 부르봉 왕정에 맞서는 자유주의파의 주장이었다. 자유주의파의 주장이 성공을 거두어 선거가 확산되면 부르조아지가 귀족계급, 즉 Benassis에 의해서 <les supériorités sociales>로 지칭되는 계층을 제압할 것이지만, 이런 부르조아지의 승리는 곧 뒤이어 민중에 의해 이의 제기를 받게 될 것이란 것이 Benassis의 입을 통해서 제시되는 Balzac의 견해이다.

5) Balzac, *Le Médecin de Campagne*, in *La Comédie humaine*, tome IX, Pléiade, 1978, p.505.

6) *Ibid.*, p.509.

민중은 귀족계급보다 자신과 더 가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르조아지의 재산과 특권을 더 가증스럽고 견딜 수 없는 것으로 여기리라는 것이다. *Le Médecin de Campagne*는 1832~33년에 걸쳐 쓰여진 작품이기 때문에 Balzac의 이와 같은 견해는 7월혁명 후에 부르조아지가 민중의 공격 대상이 되었던 사회적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작품의 제작 연대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견해는 대단한 예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Balzac가 민주적 선거제도란 끊임없는 사회적 쟁투와 마침내는 사회적 혼란으로 귀결되는 유해한 제도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거제도의 확산 끝에 찾아올 우려할 만한 사회적 혼란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Dans ce combat, la société, je ne dis pas la nation, périrait de nouveau; parce que le triomphe toujours momentané de la masse souffrante implique les plus grands désordres. Ce combat serait acharné, sans trêves, car il reposerait sur des dissidences nombreuses entre les électeurs, dont la portion la moins éclairée mais la plus nombreuse l'emporterait sur les sommités sociales, dans un système où les suffrages se comptent et ne se pèsent pas.⁷⁾

이러한 쟁투에서는, 사회가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또 다시 멸망할 것입니다. 항상 일시적이게 마련인 고통받는 대중의 승리란 더할 나위 없는 무질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쟁투는 선거인들 사이의 수많은 분열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악착같고 쉴 사이가 없을 것입니다. 투표가 무게로 계량되지 않고 숫자로 헤아려지는 제도에서는, 가장 계발되지 못했으나 가장 숫자가 많은 부분이 사회적 상층부를 압도할 것입니다.

군주제도에 대한 부르조아지의 승리는 필연적으로 부르조아지에 대한 민중의 승리를 유도할 것이며, 민중의 승리는 끊임 없는 쟁투 끝에 마침내 사회적 대혼란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Balzac는 보고 있는 것이다. 선거제도의 결과가 이러한 사회적 무질서와 혼란이라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우려할만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 질서의 옹호자인 Balzac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상인 것이다. 그리하여 Balzac는 선거의 원리를 현대의 정부제도와 양립할 수 없는 유해한 원리로서 배제하고 있다.

Qui vote, discute. Les pouvoirs discutés n'existent pas. Imaginez-vous une société sans pouvoir? Non. Eh bien, qui dit pouvoir dit force. La force doit reposer sur des choses jugées. Telles sont les raisons qui m'ont conduit à penser que le principe de l'élection est un des plus funestes à l'existence des gouvernements modernes.⁸⁾

투표하는 자는 논쟁을 합니다. 논쟁의 대상인 권력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권력 없는 사회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테, 권력이란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힘은 <판단된 사실들>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선거의 원칙이 현대 정부의 존재에 가장 유해한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7) *Ibid.*, p. 507.

8) *Ibid.*, p. 508.

또한 Balzac는 의회제도의 원리, 즉 의회에 의한 행정권의 통제에도 명백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그의 생각에 의하면 권력이란 강력한 것이어야 하는데, 의회제도는 강력한 권력과 비양립적이기 때문이다. 각 지역에서 나온 수백명의 의원들이 통치를 자임할 경우 그것은 곧 무정부상태의 위험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그들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인식할 수 없으며, 공고한 단결력을 유지할 수 없고, 통일된 견해를 가질 수 없어서 행동하는 대신 끊임없이 논란만 되풀이 하게 될 것이다. <Une assemblée délibérante qui discute les dangers d'une nation, quand il faut la faire agir, ne vous semble-t-elle donc pas ridicule? 국민을 행동하게 해야 할 때 국민의 위험을 토론하는 의회란 여러분에게 우스꽝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⁹⁾라는 물음은 의회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비효율성 때문에 의회제도는 결국 한 사람의 독재로 귀착되고 말 것이다. 나아가 Balzac는 의회의 입법기능에도 반대한다. <Les hommes sortis incessamment de cinq cents localités différentes ne comprendront jamais d'une même manière l'esprit de la loi, et la loi doit être une. 오백 개의 상이한 지역에서 끊임없이 출현한 사람들은 결코 동일한 방식으로 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인데, 법이란 동일한 것이어야만 합니다.>¹⁰⁾라는 진술이 의회의 입법기능에 대한 반대의 이유가 된다. 그렇다면 의회는 어떤 존재이유를 갖고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 정부의 조세에 동의하고 거부하는 권한만을 의회에 유보해야 한다는 것이 *Le Médecin de Campagne*에 표명되고 있는 Balzac의 견해이다.

이상과 같은 선거제도와 의회제도에 대한 비판 위에 Balzac의 보수적인 정치적 이념은 근거해 있다. 그는 의회의 기능이 극도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더러, 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권이 극히 제한된 사회적 엘리트에게만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언급한 부분이 현존 제도와 여론에 대한 Balzac의 비판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Balzac가 구축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정치적 제도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질서와 특권을 옹호하고 유지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사회적 엘리트층, Balzac의 표현에 의하면 <supériorités sociales>은 세 종류로서, 사상적 엘리트 *supériorité de pensée*, 정치적 엘리트 *supériorité politique*, 재산의 엘리트 *supériorité de fortune*이다. 이 엘리트층은 현실정치가 중요시해야 할 요소이며, 이 엘리트층에 저항하는 것은 인간사회의 본성에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엘리트층은 자신들의 보존을 위해 결합하여야 하고, 민중의 반항을 억압해야 할 것이다. 민중에게 필요한 것은 부여된 행복이기 때문에, 엘리트층이 민중 자신보다도 민중의 평안에 더 효율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엘리트주의의 이면에는 질서의 옹호자로서의 Balzac의 비전과 아울러 인간 사이의 불평등을 불가피하고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는 Balzac의 비전이 숨어 있다. Rousseau 이래의 인간의 평등에

9) *Ibid.*, pp.511-512.

10) *Ibid.*, p.511.

대한 주장과 견해에 정면으로 맞서는 Balzac의 현실주의적 비전은 Benassis의 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Or, comme, en supposant table rase, les unités sociales parfaitement égales, les naissances en même proportion, et donnant à chaque famille une même part de terre, vous retrouveriez en peu de temps les irrégularités de fortune actuellement existantes, il résulte de cette vérité flagrante que la supériorité de fortune, de pensée et de pouvoir est un fait à subir, un fait que la masse considérera toujours comme oppressif, en voyant des privilèges dans les droits le plus justement acquis. Le contrat social, partant de cette base, sera donc un pacte perpétuel entre ceux qui possèdent contre ceux qui ne possèdent pas.¹¹⁾

그런데, 백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동일한 출생 비율을 가진 완벽하게 평등한 사회적 단위들을 상정한다 해도, 그리고 각각의 가족에게 똑같은 몫의 토지를 준다 해도, 얼마 안가서 현존하는 바와 같은 재산의 불균등이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명백한 진실로부터 재산과 사상과 권력의 엘리트층은 받아들여야만 할 사실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중은 가장 정당하게 획득된 권리 속에서 특권을 보면서도, 그런 사실을 언제나 억압적인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기초로부터 출발하는 사회 계약은 무산자들에 맞서는 소유자들 사이의 항구적인 협약이 될 것입니다.

인간사회의 불평등을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현상으로 본다는 것은 위계적 질서에 의해 조직된 사회를 상정하는 것이다. Balzac는 위계적 질서를 인간사회의 자연스런 질서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은 이 위계적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도록 조직되고 기능해야 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 위계의 최상층을 차지해야 할 특권층의 숫자는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로마와 프랑스의 역사를 해석하고 있다. 옛 로마 공화정은 원로원의 특권 덕택에 세계 정복에 성공할 수 있었으나, 귀족계급의 확산과 더불어 유지될 수가 없었고, 제국이 성립되어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된 결과 수세기 동안 지배체제가 가능했으나 황제가 권위되자 야만인들의 손에 로마제국이 멸망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프랑크족이 프랑스 땅을 정복하여 수백 수천명이 특권층을 이루어 봉건제도를 운영하는 동안은 문제가 없었으나, 특권층의 숫자가 확산되어 수만명에 이르게 되자 혁명이 폭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Balzac는 Benassis의 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사회적 유동성의 길을 열어놓고 있기는 하다.

Tout pouvoir tend à sa conservation. Pour vivre, aujourd'hui comme autrefois, les gouvernements doivent s'assimiler les hommes forts, en les prenant partout où ils se trouvent, afin de s'en faire des défenseurs, et enlever aux masses les gens d'énergie qui les soulèvent. En offrant à l'ambition publique des chemins à la fois ardues et faciles, ardues aux velléités incomplètes, faciles aux volontés réelles, un État prévient les révolutions que cause la gêne du mouvement ascendant des véritables supériorités vers leur niveau.¹²⁾

11) *Ibid.*, p. 510.

12) *Ibid.*, p. 509.

모든 권력은 자체의 보존을 지향합니다. 옛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정부들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강한 사람들이 있는 도처에서 그들을 택해서 그들을 동화시킴으로써 그들을 정부의 방어자로 만들고, 대중을 봉기시키는 정력적 인사들을 대중으로부터 빼앗아야만 합니다. 대중의 야망에 험난한 동시에 수월한 길, 불완전한 욕망에는 험난하고, 실재하는 의지에는 수월한 길을 제공함으로써, 국가는 합당한 수준을 향한 진정한 우월성의 상향의 움직임에 대한 방해가 야기하는 혁명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열려 있는 좁은 사회적 상황의 가능성이 인간 사이의 평등을 지향하는 보다 정의로운 사회적 질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것은 특권에 기초한 불평등한 질서를 보다 공고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특권에 위협적인 요소를 사전에 동화시키자는 논리일 뿐이다. Balzac가 제시하는 사회적 유동성은 소수의 특권을 좀더 안전하고 영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보조장치로서의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보통선거에 대한 반대, 의회가 권력을 행사하는 의회제도에 대한 반대, 조세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정도로의 의회 기능의 축소, 극히 제한된 사회적 엘리트층만에 의한 의회 의원의 선거, 특권을 옹호하고 유지하는 위계적 사회질서의 확립, 이것이 그의 대변인격인 Benassis를 통하여 Balzac가 주장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Balzac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통치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한 사람의 손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강력한 체제, 다시 말해 군주제이다. 아무런 유보없는 적나라한 군주제 옹호론을 Benassis는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 있다.

Le pouvoir, la loi, doivent donc être l'oeuvre d'un seul, qui, par la force des choses, est obligé de soumettre incessamment ses actions à une approbation générale.¹³⁾

권력, 법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행위를 보편적 동의에 부단히 내맡기지 않을 수 없는 단 한 사람의 과업이어야만 합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권력의 형태가 어떻게 반드시 선의의 방향으로만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의회가 통제의 기능을 행사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는 이 절대권력이 부패하여 단순한 폭정으로 전락할 위험은 없는 것인가? 당연히 제기되는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Balzac는 절대권력의 평형추로서 종교를 내세운다. 종교만이 권력의 남용과 부패를 방지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La religion est le seul contrepoids vraiment efficace aux abus de la suprême puissance. Si le sentiment religieux périclète chez une nation, elle devient séditieuse par principe, et le prince se fait tyran par nécessité.¹⁴⁾

종교가 최고의 권력의 남용에 대한 정말로 효과적인 유일한 평형추입니다. 만약 어떤 국민에게 종

13) *Ibid.*, p.512.

14) *Ibid.*, p.512.

교적 감정이 소멸된다면, 그 국민은 원칙적으로 반란적이 되며, 군주는 필연적으로 폭군이 됩니다.

이러한 논리로 볼 때 Balzac가 구상하고 있는 군주제는 이미 종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의 힘을 배제한 군주정치는 애초에 생각할 수도 없는 것으로서, Balzac의 생각 속에서 종교와 군주제는 항상 함께 존재하는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필요불가결한 두 요소이다. 종교는 군주의 절대권력을 건전하게 유지하도록 해주는 지주일 뿐만 아니라, 특권에 입각한 사회의 위계질서를 보존하도록 해주는 효과적인 장치이기도 하다. 종교는 빈자에게는 인종을 가르치고, 부자에게는 빈자의 벗이 되도록 가르침으로써 사회적 평화를 유지하는 힘이 된다. *Le Médecin de Campagne*는 종교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작품으로 보인다. Balzac의 정치·사회적 이념의 체계적 설명이 시도되는 제 3장 이전에도 Banassis는 여러 군테에서 인간사회에서의 종교의 필요성을 누누히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Balzac의 비전 속에서 종교는 통치의 수단인 동시에 엄격하게 조직된 위계화된 사회질서의 평화를 유지하는 도구이며, 이 세상의 삶의 고달픔을 완화해 주는 위안물이기도 하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란 공격의 좋은 표적이 될만한 Balzac의 종교관의 요점을 Benassis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La nature a basé la vie humaine sur le sentiment de la conservation individuelle, la vie sociale s'est fondée sur l'intérêt personnel. Tels sont pour moi les vrais principes politiques. En écrasant ces deux sentiments égoïstes sous la pensée d'une vie future, la religion modifie la dureté des contacts sociaux. Ainsi Dieu tempère les souffrances que produit le frottement des intérêts, par le sentiment religieux qui fait une vertu de l'oubli de soi-même, comme il a modéré par des lois inconnues les frottements dans le mécanisme de ses mondes. Le christianisme dit au pauvre de souffrir le riche, au riche de soulager les misères du pauvre; pour moi, ce peu de mots est l'essence de toutes les lois divines et humaines.¹⁵⁾

자연은 인간 생활을 개인적 보존의 감정에 기초하도록 했으며, 사회생활은 개인적 이해에 근거해 있었습니다. 나에게서 진정한 정치적 원리가 그러한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생각 밑으로 그런 두 이기적 감정을 억제함으로써, 종교는 사회적 관계의 냉혹함을 완화시켜 줍니다. 이처럼 신은 그의 세상의 메카니즘 속에서 알지 못할 법칙에 의해 마찰을 완화시켜 주셨듯이, 자아의 망각을 덕성으로 여기게 해주는 종교적 감정에 의해, 이해관계의 충돌이 만들어내는 괴로움을 완화시켜 주십니다. 기독교는 빈자에게는 부자를 감내하고, 부자에게는 빈자의 비참을 위무하라고 말합니다. 나에게서 이 몇마디 말이 신과 인간의 모든 법의 요체입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Le Médecin de Campagne*에 나타난 Balzac의 정치·사회적 이념은 그가 *La Comédie humaine*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선언을 확인해 주고 있다. <나는 종교와 군주제라는 영원한 두 진리의 빛으로 글을 쓴다. 종교와 군주제는 현대의 사건들이 단언하는 두 필연성이며, 양식 있는 모든 작가는 우리의 나라를 그것을 향해 이끌어가도록 애써

15) *Ibid.*, p. 513.

야만 한다.>¹⁶⁾라는 1842년의 선언은 그 10년 전에 그가 썼던 작품 내용의 요약이며, *Le Médecin de Campagne*에서 Benassis가 하고 있는 긴 진술은 이 선언의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Balzac는 1832년부터 왕당파를 자처했으며, 1832~33년에 걸쳐서 쓴 작품 *Le Médecin de Campagne*는 왕당파 Balzac의 정치이론의 구체화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는 *La Comédie humaine*의 서문이 쓰여진 1842년까지 Balzac의 정치적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그의 정치적 입장에는 어떤 변화의 조짐이 없었다.

4

<종교와 군주제라는 영원한 두 진리의 빛>에 입각하여 글을 쓴다는 Balzac 자신의 선언이 그대로 확인되는 *Le Médecin de Campagne*에 나타난 Balzac의 정치적 이념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의심할 나위 없이 보수적이며 퇴영적이고 반동적인 이념이라고 규정해 버리면 문제는 간단할 것이다. 그러나 보수적 성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Balzac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려는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며, 그러한 비평적 태도가 지금까지 Balzac 연구의 주조를 이루어온 만큼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

Balzac를 정당화하는 일차적인 논거는 그가 정통왕조주의자 *légitimiste*를 자처했고, 정통왕조파의 도움으로 의회에 진출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념이 정통왕조파의 이념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로부터 나온다. 다음의 논평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Benassis의 진술 가운데 정통왕조주의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내용이 적절적으로 담겨 있는 것은 없다.

Politiquement, Benassis-Balzac se déclare partisan d'un pouvoir fort, concentré entre les mains d'un chef puissant et qui ait l'étoffe d'un législateur. On voit déjà quelles distances le romancier prend à l'égard de son article du *Rénovateur*, qui fleurait bon le pur légitimisme. On chercherait en vain ici les mots de *légitimité* ou même seulement de *roi*; on attendrait même celui de *tyran*, pris dans son sens antique.¹⁷⁾

정치적으로, 베나시 즉 발자크는 입법자의 자질을 지닌 강력한 군주의 수중에 집중된 강한 권력의 지지자임을 선언한다. 순수한 정통왕조주의의 색채를 보였던 <개혁>지의 자신의 글에 대해서 이 소설가가 어떤 거리를 두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미 알아볼 수 있다. 여기서 <정통왕조주의>라는 말, 단지 <국왕>이라는 말이라도 찾아보려 했자 허사이다. 차라리 고대적인 의미로서의 <폭군>이란 말이 기대될 정도이다.

16) Balzac, *Avant-propos*, in *La Comédie humaine*, Tome I, Pléiade, 1976, p.13.

17) R. Fortassier, Introduction au *Médecin de Campagne*, in *La Comédie humaine*, Tome IX, Pléiade, 1978, p. 365.

종교와 군주제의 옹호라는 큰 줄거리에서 Benassis를 통해 주장되는 Balzac의 입장은 정통왕조파의 입장에 합류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통왕조파의 입장은 군주제라는 제도 일반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Bourbon 왕가의 정통성을 지키고 계승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력한 군주제 자체에 집착하는 Balzac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입법자로서의 풍모를 갖춘 강력한 군주에 대해서 말할 때의 Benassis의 참조의 대상은 어떤 Bourbon 왕가의 왕보다도 우선 Napoléon인 것이 분명하다. Benassis 자신이 Napoléon 숭배자일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헛간에 모여 밤새워 Napoléon의 무훈담을 얘기하는 장면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Le Médecin de Campagne*는 전체적으로 Napoléon에 대한 숭배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작품이다. 정통왕조주의자임을 자처하면서 Bourbon 왕가의 최대의 적인 Napoléon을 찬양하고, 그를 모델로 한 군주제를 주장하는 Balzac가 정통왕조파에게 의심스러운 존재로 비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Balzac가 참여하기를 열망했던 정통왕조파에게, 그리고 후에 보수주의자들에게 *Le Médecin de Campagne*가 어떻게 평가되었는가를 다음의 지적은 잘 설명해 주고 있다.

Les royalistes du duc de Fitz-James éreintèrent son *Médecin de Campagne*, pourtant rempli de déclarations qui se voulaient féales: ils y flairaient sans doute trop de Saint-Simon et trop de philosophie organisatrice. Plus tard, c'est bien encore le contenu et le signifié de l'oeuvre qui toujours rendit Balzac suspect aux conservateurs, qu'ils le fussent de tempérament, de système ou d'idéologie.¹⁸⁾

피츠 제임스 공작의 왕당파들은 왕당파에 충실하고자 하는 선언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골 의사》를 혹평했다. 아마도 그들은 거기서 지나친 생시몽의 냄새, 지나친 조직적 철학의 냄새를 맡았을 것이다. 후에 가서는 나아가 작품의 내용과 의미가 항상 발자크를 보수주의자들(그들이 기질적 보수주의자이든, 체계적 보수주의자이든, 또는 이데올로기적 보수주의자이든 간에)에게 수상적인 존재로 보이게 했다.

부르조아 출신으로서 젊은 시절에 자유주의적 이상을 간직하기도 했던 Balzac의 왕정에 대한 편향은 Chateaubriand이나 Vigny 같은 귀족 출신 작가들의 혈통왕조에 대한 생태적인 충성심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Balzac과 Vigny의 정통왕조주의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그것을 잘 지적하여 준다.

Il n'y a donc aucun rapport entre le légitimisme de Vigny, en 1830, et celui de Balzac en 1832. Vigny, hobereau élevé par des âmes fidèles au souverain légitime, est sincèrement royaliste, et le drame de juillet le fait renoncer à sa conviction première; Balzac est un bourgeois libéral, qui joue la carte ultra parce qu'il veut devenir propriétaire, faire un riche mariage, briller dans les salons et à la Chambre.¹⁹⁾

18) P. Barbéris, *Balzac, une mythologie réaliste*, Larousse, 1971, p.203.

19) A. Wurmser, *La Comédie inhumaine*, Gallimard, 1979, p.531.

1830년의 비니의 정통왕조주의와 1832년의 발자크의 정통왕조주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정통 군주에 대해 충성스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양육된 시골 귀족 비니는 진심으로 왕당파이며, 7월의 극적 사건이 그로 하여금 초기의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도록 만든다. 발자크는 지주가 되고, 부유한 결혼을 하고, 살롱과 의회에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급진 왕당파의 카드를 사용하는 자유주의적 부르조아인 것이다.

이상의 설명으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Balzac의 주장이 정통왕조파의 입장과는 얼마간 궤를 달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가 절대왕정과 종교의 옹호자라는 사실에 변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Balzac는 여전히 인간 사이의 평등을 부인하고 위계적 사회질서와 특권을 옹호하는 보수주의자로 남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Balzac의 충실한 벗으로서 그에게 헌신적이었던 Zulma Carraud 부인의 비판을 인용해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Vous érigez en principe la nécessité des classifications sociales et voulez parquer l'espèce humaine d'après le hasard de la naissance et condamnez à l'amère servitude, à la dépravante dépendance, des gens à âme large, à génie égal au vôtre, peut-être. J'ai vu là un hommage à votre parti, et un soupir est sorti péniblement de ma poitrine.²⁰⁾

당신은 사회적 구별의 필요성을 원칙으로 설립하고 출생의 우연성에 따라 사람들을 구획짓고, 관대한 마음과 어찌면 당신과 대등한 재능을 지닌 사람들을 고통스런 굴종과 타락적 종속으로 처단해 버립니다. 나는 거기서 당신의 당파에 대한 찬사를 보았고, 내 가슴에서는 한숨이 고통스럽게 솟아 났습니다.

Balzac를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했던 Balzac의 가장 충실한 애호자 Zulma Carraud 부인에게 이처럼 비판을 받았던 그의 보수주의가 그 자체로서 변호되고 정당화될 소지는 거의 없을 것이다. 선거와 의회제도의 원리에 대한 전적인 부정, 절대왕권과 절대왕권의 지주로서의 종교에 대한 옹호, 사회적 불평등 질서와 특권의 지지로 요약될 수 있는 Balzac의 보수주의는 현대세계의 체가치에 대한 도전이며,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역사의 흐름에 정면으로 거슬러 가고자 하는 반동적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다. Balzac의 반동적 역사관이 그 자체로서 정당화될 여지가 없는 것이라면, 그것의 정당화의 근거는 Balzac의 작품, *La Comédie humaine*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시 한 번 Victor Hugo 이래의 Balzac 옹호론, Engels의 이른바 <리얼리즘의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유명한 명제로 되돌아가게 된다. Balzac는 정말로 자신의 계급적 공감 및 정치적 편견과 반대되는 작품을 쓴 작가인가, *La Comédie humaine*는 작가의 보수주의적 세계관을 부인하고 반박하는 작품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미 분명하게 내려진 것으로 보일 수 있다. Marx, Engels 같은 급진적 사상가, Hugo, George Sand, Zola, Gorki 같은 진보적 경향의

20) *Ibid.*, p.529에서 재인용.

작가들을 적극적인 옹호자들로 만남으로써 Balzac의 보수주의는 더 이상 그 자체가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Balzac는 보수적 신념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전반의 프랑스 사회를 가장 정확하게 보고 그려낸 *La Comédie humaine*라는 거대한 작품군의 내용에 의하여 19세기의 가장 뛰어난 리얼리스트, 결과적으로 진보적인 작가가 될 수 있었다고 평가되는 것이다. 마르크시즘의 이론으로 무장한 Pierre Barbéris나 André Wurmser 같은 오늘날의 두드러진 Balzac 연구자들의 관점도 근본적으로 리얼리즘의 승리라는 Engels의 명제와 같은 맥락에 서 있다. *La Comédie humaine*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되는 이 방대한 작품군의 사회사적 가치를 누가 부인할 수 있을 것인가?

Aussi, en dépit de l'absence, au premier plan, des personnages politiques et des événements historiques, *La Comédie humaine* est bien ce qu'elle veut être: l'histoire naturelle de la société. Peindre la société française sous la Restauration et la monarchie de Juillet et ne point se soucier du passage de l'une à l'autre, ce n'est pas manquer à son devoir d'historien *de la société*: c'est seulement comprendre qu'il y eut en France une grande révolution, mais une seule—celle de 1789.²¹⁾

정치적 인물들과 역사적 사건들이 작품의 전면에 부제함에도 불구하고, 《인간희극》은 그것이 되고자 원하는 것, 즉 사회의 자연스런 역사이다. 왕정복고와 칠월왕조하의 프랑스 사회를 그리는 것, 그 한 체제에서 다른 체제로의 이행을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그것은 <사회> 사가로서의 그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프랑스에 하나의, 단 하나의 큰 혁명, 즉 1789년의 혁명이 있었음을 이해하는 것일 뿐이다.

*La Comédie humaine*는 대혁명이 빚어낸 프랑스 사회의 탁월한 증언이라고 얘기될 때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논거는 이 작품군이 작가의 계급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귀족계급의 멸망의 필연성과 부르조아지의 상승을 뚜렷하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Engels의 명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수많은 비평가가 미세하게 증명해 놓은 이 논의를 다시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채택한 관점은 *La Comédie humaine*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Le Médecin de Campagne* 한 작품을 미시적으로 살펴보려는 것인 만큼, Engels의 명제가 이 작품에도 그대로 대응되는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Le Médecin de Campagne*에는 고유한 의미로서의 귀족계급이 출현하지 않는다. La Fosseuse를 거두어 보호해 주다가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자 무자비하게 내쫓는 한 귀족가문의 삽화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 삽화에서 귀족계급의 운명을 예감할 어떤 단서를 찾아볼 수는 없다. Benassis가 정착하여 번영을 이룩해내는 알프스 산간 마을의 얘기는 부르조아지의 상승을 증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Rousseau가 *La Nouvelle Héloïse*의 Clarens을 통하여 자신의 유토피아를 그려낸 것처럼 Balzac의 유토피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산간마을의 번영과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는 달리 긴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는

21) *Ibid.*, p.574.

Balzac의 유토피아가 *La Comédie humaine* 전반이 갖고 있는 의미, 즉 부르조아지의 상승과 지배권을 증언함으로써 대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의 전개 방향과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작자의 보수주의를 반박하는 의미를 지니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다. Benassis의 마을은 알프스 산중의 고립된 작은 마을이며, Benassis의 헌신적 노력에 의해 도입된 농업과 공업과 상업의 발전 속도가 아무리 빠른 것이라 할지라도 그곳의 주민들은 아직 부르조아이기보다는 농민의 모습을 띄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을 통해서 귀족계급을 압도하는 부르조아지의 패권을 읽어낸다는 것은 너무도 엄청난 비약이 될 것이다. 비평가들은 이 유토피아에서 Balzac의 saint-simonisme에의 경사를 보기도 하고²²⁾,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 나아가 사회주의 사회의 징후를 읽어내기도 한다.²³⁾ 그러나 이 유토피아 묘사는 너무나 목가적 열정으로 가득차 있어서 그 실재를 믿기가 어려우며, 리얼리스트 Balzac의 명성에 잘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다음과 같은 Bardèche의 평가가 아마도 가장 정확한 관찰일 것이다.

Ces maisons qui sortent du sol en deux ans dans un canton déshérité, ce vannier, ce tanneur qui s'enrichissent si vite pendant que leurs ouvriers chantent joyeusement, ce libraire qui va bientôt s'installer, c'est de l'irréalisme tout pur, mais porté par l'allégresse de la création, non de la création littéraire, mais la création et germination des choses en l'exprimant. Tout le monde autour de Benassis est porté par un élan, heureux de se donner, heureux de se vouer, heureux d'enfanter. (...) Dans la rhétorique du bon gouvernement, c'est l'idéologue qui parle, il rêve des bons sauvages d'Otaïti, il leur apporte, comme les missionnaires, des Bibles et des culottes: mais dans sa peinture même, dans ce coloriage trop bleu, trop rose, trop attendri, c'est en lui l'autre rêve de Rousseau qu'on reconnaît, celui de *La Nouvelle Héloïse*.²⁴⁾

헐벗은 면에서 2년만에 땅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그 집들, 노동자들이 즐겁게 노래부르는 동안에 그 처럼 빨리 번성하는 그 광주리 공장이며 그 가족 공장, 곧 들어서게 될 그 서점, 그것은 문학적 창조가 아닌 창조의 희열에 이끌린 순진한 비현실성이며,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생겨나는 사태의 창조와 발생이다. 베나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바치고 헌신하여 산출하는 데 행복을 느끼는 열정에 이끌린 사람들이다. (...) 훌륭한 통치의 수사학 속에서 발언하는 것은 관념론자로서, 그는 오타이티의 선량한 야만인들을 꿈꾸며, 선교사들처럼 그들에게 성경과 짧은 바지를 가져다 준다. 그러나 그의 묘사 자체에서, 너무도 푸르고, 너무도 장미빛이며, 너무도 감동된 착색에서 알아보게 되는 것은 루소의 또 다른 꿈, 《신엘로이즈》의 꿈인 것이다.

작품의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작품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Benassis의 유토피아를 다루고 있는 제 1장과 제 2장에서 우리는 Benassis의 보수주의적 정치관을 부인하고 반박하는 단서를 찾아보기 힘들다. 빈한하고 헐벗은 산간 마을을 찾아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주인공의 면모를 단순히 사랑에 실패하고 아들을

22) R. Fortassier, *op. cit.*, p.362 참조.

23) A. Wurmser, *op. cit.*, p.534 참조.

24) M. Bardèche, *op. cit.*, pp.237-238.

잃어버린 사람의 보상심리로만 몰아부치는 것은 좀 가혹한 판단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보수주의를 길게 진술하는 Benassis와 산간마을의 유토피아 건설에 진력하는 Benassis 사이에서도 필연적인 연결의 끈을 찾아보기 힘들다. Benassis의 헌신은 그가 정치적으로 보수주의자이냐 진보주의자이냐 하는 문제와는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인다. 그가 건설하는 산간마을의 유토피아는 그의 정치적 신념의 구체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 제 3장에서 Benassis가 자신의 정치관을 설명할 때까지 독자는 이 인물의 박애주의적 면모 이외에 그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Le Médecin de Campagne*의 제 3장과 그 이전 부분은 각각 독립된 monographie를 이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의 통일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5

자신이 출마하고자 했던 선거에서 하나의 선전물로 이용할 목적으로 보수적인 정치·사회적 이념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Le Médecin de Campagne*는 Balzac의 표면적 신념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는 작품이다. *La Comédie humaine* 전체의 체계를 고려하고 원용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한 작품 내에서 Balzac의 보수적 이념을 변호하여 결과적으로 그를 진보적인 리얼리스트로 규정할 논거를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e Médecin de Campagne*라는 작품을 비판적으로 보려는 관점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며, 이 작품을 포함하여 Balzac의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는 논의는 무성하다. 마르크시즘에 입각한 Balzac 연구가들의 이 작가에 대한 옹호는 유별난 것으로 보인다. André Wurmser는 Balzac의 소설을 곧장 마르크스 이론의 해설로 연결시킨다.

(...) le roman réaliste, le roman balzacien étant par définition l'exposé de la société et de la raison de son mouvement, est aussi l'exposé des motifs de la théorie marxiste.²⁵⁾

(...) 리얼리즘 소설, 본래 사회와 사회적 움직임의 이유의 설명인 발자크적 소설은 또한 마르크스 이론의 모티브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Pierre Barbéris는 Balzac의 정치관이 노정하는 반동적 성격을 공격하는 대신 강력하고 통합적이며 중앙집권적인 권력에 대한 Balzac의 지향을 곧장 마르크시즘의 권력 조직에 대한 전망과 연결시키고 있다.

(...) même sans Mme Hanska, Balzac aurait été pour un pouvoir fort, unificateur et centralisateur qui à la fois intègre et promeuve les forces de la nation au lieu de les laisser (ou de les faire) jouer les unes contre les autres, et qui aide au développement de tout ce qui vit et aspire

25) A. Wurmser, *op. cit.*, p.738.

au progrès. Il faut bien comprendre que cette vue du pouvoir avait pour lui une valeur et une fonction essentiellement critique.²⁶⁾

(...) 한스카 부인이 없었다 할지라도, 발자크는 국민의 힘을 상호 길항하게 방치(또는 조장)하는 대신 그것을 통합하고 증진시키며, 진보를 원하고 갈망하는 모든 것의 발전을 돕는 강력하고, 통합적이며 중앙집권적인 권력의 편에 섰을 것이다. 이러한 권력관이 그에게는 가치를 지니며, 본질적으로 비판적인 기능을 갖고 있었음을 이해해야만 한다.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Balzac 해석이 반드시 Engels의 명제에 충실하려는 교조적 입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좌우 이데올로기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이데올로기 문제가 지성인들 사이의 중심적인 관심사였던 시대의 산물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결같은 Balzac 옹호의 물결 속에서 다음과 같은 Maurice Bardèche의 *Le Médecin de Campagne*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는 대단히 희귀한 것이다.

Mais *Le Médecin de Campagne* a été soutenu surtout par la gloire de Balzac et l'espèce de culte qu'on a fini par lui vouer: on peut se demander si on le lirait encore sans le nom prestigieux qui le recommande.²⁷⁾

그러나 《시골 의사》는 발자크의 영광과 마침내 사람들이 그에게 바치기에 이른 일종의 숭배에 의해 특히 지탱되어 왔다. 이 작품을 천거하는 마력적인 작가의 이름이 없어도 아직 사람들이 이 작품을 읽을지는 의문이다.

Bardèche의 회의는 이 작품을 검토하고난 후의 우리의 회의와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Le Médecin de Campagne*는 Balzac의 정치적 이념이 장황하게 진술되며, 그것이 적나라하게 작품의 전면으로 떠오르는 소설이다. 어떤 이념적 입장에 서는 독자이든간에 이처럼 이념적 진술이 직설적으로 제시되는 소설은 소설적 흥미와 양립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작품에 전개되는 이념은 보수적이고 퇴영적이며 반동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마땅할 성격의 이념이며, 많은 Balzac 연구자들의 변호와 정당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작품 자체 내에서는 그 이념을 부인하고 반박할 소설적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26) P. Barbéris, *Balzac, une mythologie réaliste*, p. 205.

27) M. Bardèche, *op. cit.*, p. 236.

《Résumé》

Le caractère idéologique du roman balzacien**LEE. Dong-Yul**

Le Médecin de Campagne est une oeuvre où Balzac expose au public une vue d'ensemble de ses idées politiques, sociales, morales et religieuses. La profession de foi de Balzac, exprimée par la voix de Benassis, héros du roman, en révèle le caractère extrêmement conservateur. Balzac critique sévèrement le principe du suffrage universel et du parlementarisme. Selon ses idées, le droit d'élection doit être limité aux élites restreintes, puisque l'égalité entre les citoyens n'est qu'un mythe, et le pouvoir politique doit être mis entre les mains d'un chef puissant, puisque le pouvoir a besoin d'unité et de force. Le seul contrepoids efficace à ce système sera la religion qui enseigne aux pauvres la résignation, et aux riches la charité. Balzac s'affirme dans cette oeuvre comme un écrivain qui déclare écrire à la lumière de deux vérités éternelles, la religion et la monarchie.

Malgré le conservatisme éclatant de Balzac, les balzaciens, surtout les balzaciens à la tendance marxiste essaient de justifier la position idéologique de Balzac, et de vérifier dans ses oeuvres la fameuse thèse d'Engels, <le plus grand triomphe du réalisme>. La raison en est sans doute dans la peinture cynique et impitoyable que *La Comédie humaine* a faite de l'aristocratie et de la monarchie restaurée. Pourtant, au moins dans le cadre du *Médecin de Campagne*, il n'y a pas de données qui pourraient épargner Balzac conservateur réactionnaire. *Le Médecin de Campagne* reste une sorte de bréviaire du conservatisme dont la propre justification ne porte pas sur le contexte de l'oeuvre, et se révèle un roman dont la qualité littéraire est plutôt douteuse.